

壬亂時 明兵에 대한 軍糧 供給

李 貞 一

史 學 科

(85. 4. 30 접수)

〈要 約〉

本稿에서는 壬辰倭亂을 치루는 동안 援軍으로 參戰하였던 明兵에 대한 軍糧의 調達·運送·供給의 過程을 戰爭遂行能力과 關聯지어 살펴 보려 하였다.

朝鮮政府에서는 各種 非常對策을 講究施行하는 한편 明에 援助를 要請하여 自國의 國防에 不安을 느낀 明으로부터 대대적인 援助를 받으므로써, 前後 七年間에 걸친 이 戰亂를 克服할 수 있었던 것이다.

A Study on the Provisionment to the Ming troops du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Lee, Jung-Il

Dept. of History

(Received April 30, 1985)

〈Abstract〉

This paper studies how the Ming reinforcements could be supplied with provisions during Japanese invasion. Korea could overcome the 7 year-long war not only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coped with the difficult situation by executing the nation-wide emergency food control but also because the Ming, feeling its own national defense threatened, assisted Korea with great supplies.

I. 序 言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戰爭의 勝敗를 左右하는 가장 重要한 要因으로 指摘되어 온 것이 軍需物資의 補給이라함은 世人周知의 常識이라 할 수 있다.

宣祖도 開戰直後부터 軍糧補給에 至大한 關心을 가졌다.

「내가 前부터 걱정했던 것이 바로 軍糧補給이다. 諸葛亮이 成功할 수 없었던 것은 軍糧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漢高祖가 能히 天下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蕭何가 軍糧을 제대로 補給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철저히 措置하도록 하라.」⁽¹⁾

그러나 王의 識示한 마디로 軍糧의 調達이 간단히 解決될 問題는 아니었다.

서울·開城·平壤의 三都가 倭軍에 의하여 차례로 占領당하고 國土의 대부분이 戰禍를 避할 수 없었던 狀況아래서 大都市에 集積되어 있던 糜穀은 倭軍이나 亂民에 의하여 消失 또는 被奪되었으며 耕作農民의 徵

(1) 宣祖實錄 卷28 宣祖 25年 7月 己未

「予從前以爲憂者始醜也。諸葛亮之不能成功以軍糧不繼也。漢高祖之能取天下賴蕭何給餉也。百分措置」

發 또는 流亡에 따라 農作地는 荒廢化되어서 收穫量은 減少되었다.

亂後의 耕地面積이 亂前의 $\frac{1}{3}$ 로 줄었다는 統計⁽²⁾만 봐도 보아도 戰時의 生產量은 增加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換言을 하면 戰爭遂行을 위한 政府의 財政需要는 엄청난 規模로 늘어났음에 비하여 國民生產은 反比例로 일정나마 줄어 들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狀況은 戰爭이 長期化됨에 따라 더욱 加速的으로 惡化되어 普通 데에 없는 性質의 것이기도 했다.

戰爭은 前後 七年間이나 지속되었으며 數十萬의 外國軍까지 投入되어 食糧事情은 더 더욱 惡化시켰다.

이와 한 與作下에서 軍糧은 그 絶對量이 不足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이었을 것이며 戰爭의 勝敗는 더 더욱 軍糧調達의 左右를 두 밖에 없었을 것이다.

實在倭軍의 侵略失敗의 가장 큰 原因은 朝鮮水軍에 의한 补給路의 遮斷이라고 理解되고 있으며 當時 明軍이 碧蹄館에서 敗戰했을 때 明의 糧餉⁽³⁾ 艾維新은 軍糧調達의 責任을 물어 朝鮮의 重臣에게 枷罰을 가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⁴⁾

이와 같은 觀點에서, 本稿에서는 그 重且大하였던 軍糧調達의 問題中 특히 援軍으로 參與 天兵이라하여 그 威勢가 巨大로 當當하였던 明兵에 대한 軍糧補給問題를 戰爭遂行의 過程 및 그 遂行能力과 關聯하여 살펴봄으로서 戰亂의 一部를 再照明白보자 한다.

II. 軍糧調達對策

1. 備蓄穀斗 田稅米

壬辰倭亂은 一種의 奇襲이어서⁽⁵⁾ 朝鮮 政府로서는 전혀 戰爭準備가 안된 狀態에서 戰亂을 맞이하게 된 셈이라 그 軍力이나 兵器의 境遇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財政의 面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이온 14年에다 政治紀綱마저 案亂해져서 三倉에 備蓄된 穀食은 中宗年間(1506~1544)의 203萬石에서 50萬石으로 減少되었다.⁽⁶⁾

그리고 이러한 備蓄穀마저도 戰禍를 입은 地域의 것은 倭軍이나 亂民에 의하여 掠奪당하거나 消失되었다.

그러나 不料中多幸이었던 것은 倭軍 또한 戰線이 걸어짐에 따라 补給이如意치 않을 것을豫想하여 速戰速決의 戰法으로 前進하므로써 자기들의 作戰遂行上 必要한 據點都邑들을 주로 占領하였기 때문에 韓半島의 主要 輪轄道路를 連結하는 大都邑들은 大部分被害을 입었으나 그 외의 地域은 無事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全國의 總官邑 328個所 가운데 44.8%에 該當하는 147個所의 官邑이被害을 免하였다며 그 종相当部分의 穀倉地城인 湖南·湖西地域이 있고 이들 地域이 戰亂中 軍糧調達源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 地域에서는 陸運(北方)과 海運(湖西·南地方)을 通過하여 備蓄穀斗 田稅米를 繼續 供給하여 주어서 戰爭初期의 敗戰을 克服하고 長期戰을 遂行할 수 있게 하므로써 戰亂을 最後의 勝利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라 하겠다.

물론 穀倉地帶인 湖南地方도 丁酉再亂 때에는 倭軍의 侵攻을 받았으며 따라서 軍糧調達의 어려움을 한층 더하게 된 증거로 事實이다.⁽⁷⁾

그러나 丁酉再亂은 短期戰으로 끝났으며, 따라서 後軍에 의한 占領期間도 긴 것은 아니었다.

(2) 崔永善:『壬辰倭寇』한국사 권 12 국사원천위원회, 1981.

(3) 軍糧: 穀倉과 官吏.

(4) 이주경:『壬辰倭寇』重臣은 兵曹判書를 歷任하고當時에 管糧官兼 知中樞府事로 있던 金應南과 戸曹參判 閔汝慶 및 衛州牧史 韓定等이다. 그러나 이 問題는 이러한 枷罰로서 끝난것이 아니다. 2月 5일에는 戸曹判書 李誠中을 推考캐 하고 2月 8일에는 宣祖가 친히 明의 副總兵楊元을 만나 謝過하였으며 2月 14일에는 禮曹判書 朴根壽를 駁鳳城에 보낸 德賜宋應昌에게 謝罪케 하였다.

(5) 姜萬吉:『韓國史의 質點——16世紀의 變化와 壬辰倭亂의 意義——』, 「韓國史의 反省」, p. 41, 歷史學會, 1973.

(6) 崔永善:『壬辰倭寇의 性格』, 「史學研究」p. 3, 韓國史學會, 1976.

(7) 柳成龍:『密諭錄』卷9癸巳 2月 9日條

(8) 宣莊實錄 卷99 宣祖 31年 4月 癸未條

그리고 이때에는 明으로부터의 援助糧飴도 많이 導入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言及한 備蓄飴과 田稅米는 어디까지나 不幸中의 多幸事를 말한 것이라 그것으로서 充分하였다는 해석은勿論 아니다.

앞에서도 指摘한대로 軍糧의 絶對量이 不足한 狀況아래서 朝廷에서는 軍糧調達을 위한 非常對策을 講究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各種 特惠를 주고 穀食을 募集하는 募粟策과 明에 援助를 要請하는 請糧使의 派遣이었다.

2. 募粟策

募粟策은 戰亂中 軍糧調達을 目的으로 納粟米의 數量에 따라서 官爵을 주거나 어진 特惠를 베푸는 臨時措置로서 행해졌는데 어떠한 措置는 朝鮮初期부터 四年이 끝나하여 食糧事情이 極度로 惡化될때면 때때로 實施하던 制度이기도 하다.

宣祖 25年(1592) 8月 朝廷에서는 募粟의 責任을 맡은 調度御史를 각道에 臨時로 派遣하였으나⁽⁹⁾ 몇 成果가 없자 同年 11月에는 다시 募粟策을 論議하게 되었는데 이 때 右參贊 成渾은 募粟官을 諸道에 正式으로任命하고 賞格을 明示하여 有粟者가 자진하여 應募할 수 있도록 誘導할 것을 建議하였고 이 建議를 받아들여 朝廷에서는 100石을 納粟하는 參奉이나 別提가 正三品階量, 數十石을 納粟한 者는 實職의 벼슬이나 守衛에 나아갈 수 있도록 规定한 募粟의 賞職令을 내렸으나 臺諫들의 反對로 論罷되었다.⁽¹⁰⁾

그리나 이미 派遣되었던 調度御史들은 그대로 活動을 繼續하고 있었는데 그해 12月에 京畿·黃海道의 調度御史가 適用되었던 別事目을 圖表化하여 보면 다음의 表(1)과 같다.⁽¹¹⁾

〈表 1〉 京畿·黃海道 調度御史가 適用한 募粟事目

身分	本官	守台	留鄉所·前御人· 凡品官			庶	鄉	吏	有役人	公·私賤
			本官守令	資窮者	前者					
100石以上	加資	代加	加二資	六品影職	限五年免役	"	"	"	"	"
300石以上	陞叙	代加二資			限五年免役 ·完護	"	"	"	"	"
500石以上	超叙	予增中參 下職除授	復職	四品影職	許通	已身免役	"	"	從良	
700石以上	超二階 陞叙		陞叙	參下實職 除授						

明兵이 平壤을 奪還하고 黃海道로 進入하자, 이 地域은 亂中 後軍에 의한被害가 커서 軍糧調達이 더욱 어려웠으므로 募粟事が 더욱 要求되며 過重한 納粟事目的 規定도 輕減이 必要하게 되었다.

그리나 備邊司는 前者에 備邊司가 마련한 募粟의 論賞規模가 朝廷의 立場에 적당한 것이라 主張하고 募粟官이 募粟의 苦衷을 나타내는 것까지 批判하여⁽¹²⁾ 募粟事目的 適正化를 期하지 못하였다.

그리나 李如松의 明兵이 碧蹄館에서 敗한 後 明兵에 대한 軍糧供給이 多急하여지자 同年 2月에 納粟事目的 改定을 斷行하였다.

이것을 圖表화하면 表(2)와 같다.⁽¹³⁾

癸巳 2月의 納粟事目(表 2)과 壬辰 12月의 京畿·黃海道 調度御史의 別事目(表 1)을 比較하여 보면 納粟에 대한 負擔이 前者가 後者보다 훨씬 줄고 酬賞은 훨씬 높아졌다음을 알 수 있다.

鄉吏의 境遇 已身免役이 500石에서 15石으로 輕減되었고 前에는 100石을 納粟하였을 境遇 격우 5年免役

(9)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 25年 8月 戊子條

(10)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 25年 11月 丁巳條

(11) 宣祖實錄 卷23 宣祖 25年 12月 乙卯條

(12) 宣祖實錄 卷35 宣祖 26年 2月 壬辰條

(13) 宣祖實錄 卷35 宣祖 26年 2月 辛丑條

〈表 2〉 宣祖 26年 2月에 改正된 納粟事目

身分 石數	鄉 吏	士 族	庶 孽
3石	免役三年	參下影職	
5石			西班牙軍職 六品
8石		六品影職	
15石	已身免役		許通
20石		東班 九品	併前(許通)所生
25石		東班 八品	
30石	免鄉·授參下影職	東班 七品	參下影職
40石	併其二子免役參下影職	東班 六品	六品影職
45石	相當軍職		
50石		東班 五品	五品影職
60石		東班 從四品	東班 九品
80石	東班實職	東班 正四品	東班 八品
90石		東班 從三品	東班 七品
100石		東班 正三品	東班 六品

이었던 것이 후에는 80石以上만 내면 東班의 實職을 除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士族이나 庶孽의 境遇도 마찬가지어서 酬賞이 大幅으로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또 特例로 累納者에게는 더욱 特典을 주어서 价川金知 李春蘭의 境遇 當上職을 除授하고도 王 累納자戶曹에서는 그 數量이 100石 以下인데도 從2品인 嘉善大夫를 除授한 것을 啓하여 王의 允許를 받았던 것이다.⁽¹⁴⁾

癸巳年 2~3월에 전처서 이와 같이 納粟事目이 改定되고 募粟活動이 强化된 것은 당시의 軍糧調達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反證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후에도 募粟을 위한 措置는 繼續되어서 同年 3월에는 除防納米制度까지 단들어서 騎兵은 35斗, 步兵은 25斗만 내면 (大豆면 倍量) 除防(除隊)케 하기도 하였고⁽¹⁵⁾ 同年 4월에는 4品以下에相當하는 職의 空名告身帖(無記名任命狀)을 數百張 領·湖南의 각 官邑에 보내어 應募도록 하기도 하였으며⁽¹⁶⁾ 乙未年(1594)에는 戶曹에서 賣罪納粟策을 主張하는 啓를 올리니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요즘 軍糧은 枯渴되었는데 일용만한 方法은 다 動員하여도 도저히 더이상 구할 길이 없습니다. 혹시 納粟을 해서라고 罪를 免하고자 하는 者가 있고 그 罪가 容恕할 수 있을만한 것이라면 願에따라 收納하여 軍糧을 補充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¹⁷⁾하니 宣祖는 이를 許諾하였던 것이다.

또 納粟人의 登用 問題에 關해서도 宣祖는 「納粟人중 끝만한 사람은 登用해도 좋다」라 하여 登用에 贛成하였고 李春蘭이 米穀累納者로 小縣의 자리를 願하자 守令에 앞서 衛將을 除授함도 可하다하여 이를 命하였다. 것이다.⁽¹⁸⁾

이같은 措置는 從來의 納粟人에게 대부분 實職이 아닌 影職이 주어져서 納粟의 効果를 올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取해진 措置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軍糧調達을 目的으로 施行된 이 募粟策은 많은 弊端을 가지았다.

많은 空名告身帖의 賣買는 虛偽의 것이 流通되기도 하였고 募粟官의 빈번한 往來는 自體經費를 增加시키

(14) 宣祖實錄 卷36 宣祖 26年 2月 內辰條

(15) 宣祖實錄 卷36 宣祖 26年 3月 內辰條

(16) 宣祖實錄 卷37 宣祖 26年 4月 壬寅條, 柳成龍: 慾慾錄 卷12 料理糧餉且請急時募粟狀

(17) 宣祖實錄 卷42 宣祖 28年 4月 癸丑條

(18) 宣祖實錄 卷50 宣祖 27年 4月 甲子條

서 黃海道에서는 15人이派遣되어 募粟한 米穀의 90%를 虛費하는 實例도 있었다.⁽¹⁹⁾

또 地方 守令들의 不正으로 納粟者가 賄賞을 받지 못한 者가 많아서 이들의呈訴가 잇달아 發生하기도 하였고 官庫의 官穀을 獻納하여 陞職된 者도 많았다.⁽²⁰⁾

이와 같은 弊端이 非一非再現을 뿐만 아니라 軍糧의 所得이 적은데 비하여 免役·免賤으로 인한 社會的 影響은 대단히 커서 募粟策은 所期의 目的과는 달리 社會身分 階層의 變化라는 期待하지 않았던 結果만을 가져온 듯하다.

3. 請糧使의 派遣

宣祖 25年(1592) 4月 13日 午後 釜山 앞바다에 나타난 倭軍은 14日 釜山鎮을 占領하고, 15日 東萊府를陥落시키며 乘勝長驅 5月 3일에는 서울을, 28일에는 臨津江을突破하고 6月 15일에는 平壤을 占領하니 그야말로 吳希文의 表現대로 「孟將渾卒聞風而先潰 大府堅城不日而失守」⁽²¹⁾하는 形便이었다.

이와같이 3大都城(서울, 開城, 平壤)이倭軍에게 跪闕 당하는 과정에서 文臣爲主로 編成된 戰爭指導部는 守城防禦作戰은 始捨하고 撤收作戰마저 재대로 違行할 수가 없었으므로 平壤城撤收時には 軍糧米 10餘萬石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로 退却하였기 때문에 그 糧穀은 그대로倭軍의手中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 糧穀은 「처음 國王一行이 平壤에 들어오자 廷議가 모두 軍糧問題를 근심하여 列邑의 田稅를 取하여 平壤으로 集結케 한 것이다.」⁽²²⁾

國王은 播遷을 거듭한 끝에 同年 6月 11일 平壤을 떠나 義州로 轉하게 되었는데 떠나기에 앞서 大司憲 李德馨을 請援使로 삼아 明에派遣하였다.⁽²³⁾

뒤이어 同年 同月에 知中樞府事 尹又新을 告急使로派遣하였고 同年 8月 24일에는 敦寧府使 鄭峴壽를 陳奏使로派遣하였다.⁽²⁴⁾

처음에 明에서는倭軍의 進擊이 너무나 빠른 것에 疑心을 품기까지 하여 或者는 「朝鮮이倭와 結託하여 假王을 앞장세워 酬導로 삼아 쳐들어온다.」⁽²⁵⁾하기도 하였으며 몇 차례에 걸쳐 實情을 把握하기 위한 情報要員을派遣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事實을 把握한 然後에는倭軍의 實勢에 놀라는 한편 自國의 國防까지도 염려스럽다는 것을 알고相當한 論議를 거친 후 大兵力을派遣하기에 이르른 것이다.⁽²⁶⁾

그리고 援兵이 進軍하는 경우 그 軍糧을 어떻게 調達할 것인가에 관한 方策도 朝明兩國에서 다같이 論議되었는데 宣祖는 「予意糧餉亦似並請 不然則難支也」⁽²⁷⁾라 하여 軍糧米 역시 援助를 要請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으며 明廷에서도 朝鮮의 實情을 충분히 理解하고 있었기 때문에 軍兵을 進發시킬 때 明軍의 所要軍糧은 물론 朝鮮軍民을 위한 援助糧穀도 數次에 걸쳐 提供하였던 것이다.

明廷에서는 援兵을派遣하기에 앞서 朝鮮政府의 나급한 實情을 考慮하여 6月에 捷軍銀 二萬兩를 보내왔으며⁽²⁸⁾ 同年 9月에는 勅使 薛藩을 보내 穀物輸運上の 難點을 들어 銀의 援助를 提議하였다.

그러나 朝鮮政府에서는 「小國은 土地가 좁고 열마안되는百姓들은 가난하며 또한 風俗으로 볼 때도 아직 金銀貨幣의 利點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록 銀이 있더라도 米穀을 사서 軍糧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²⁹⁾라 하여 輸送이 어렵더라도 糧穀의 援助만이 必要함을 力說하였다.

이어 同年 11月에는 禮曹判書 尹根壽와 戸曹參判 尹又新 등을 九連城의 遼東都司 張三悳에게 보내 여러

(19) 宣祖實錄 卷40 宣祖 26年 7月 己未條

(20) 宣祖實錄 卷97 宣祖 31年 2月 壬卯號

(21) 吳希文：瓊尾錄 卷1 壬辰南行錄

(22) 柳成龍：憲慈錄 卷1 「始車駕至壤，廷議皆以糧餉爲憂，盡取列邑田稅，輸到平壤及城陷，本倉穀十餘萬石，皆爲賊所有。」

(23) 李炯錫：壬辰戰亂史，上卷 p.231~232,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6.

(24) 이들 請援使에 앞서 24年 5月 聖節使 金應南一行과同年 冬至使 李裕仁一行을 보내 日本 情勢暨 報告書 하였으며 이어 謝恩使 申點과 書狀官 鄭期遠一行을 보내었는데一行은 北京에 머물러 있는 동안倭軍侵入消息를 듣고 兵部尚書 石星에게 呼訴하였던 것이다.

(25) 前揭 壬辰戰亂史 上卷 p.229~233.

(26) 宣祖實錄 卷28 宣祖 25年 7月 己未條

(27) 宣祖實錄 卷27 宣祖 25年 6月 辛丑條

(28) 宣祖實錄 卷30 宣祖 25年 9月 己未條

면 糧 穀 援 助 乞 懇 請 하였다.⁽²⁹⁾

이에 張三畏는 明廷의 許諾을 받아 明穀 8萬石을 備置하여 2萬石을 車輛으로 鴨綠江邊에 輸運하였다가 通報하면서 나머지 6萬石은 朝鮮政府에서 遷搬해도록 하라 하였는데 井根壽 등은 朝鮮이 被兵後 人力이 枯渴되어 輸送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明側에서 携處해 주도록 要請하였다.⁽³⁰⁾

그후 張三畏는 12月에 義州 龍灣館에 와서 遷送上 難點을 제작해 주도록 했고 國俗이나 生活上 必需品이 需要 있는 牛馬나 凶刺 等物을 援助하겠다고 提議하였다.⁽³¹⁾

그러나 이와 같은 援助物은 朝鮮의 實情으로는 穀物과 交換의 수가 少이자 朝鮮政府는 주로 穀物의 援助만을 預期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朝廷에서도 할 수 없이 糧 穀을 援助하게 되었는데 당시 丁酉에서 啓奏한 内容을 살펴보면 壬辰 12月以後 癸巳 8月까지에 導入的 明穀의 總量은 「去壬辰年十二月以後 天朝糧餉輸運之數 專數通考 則義州所排小六 五萬六百餘石 豆子五萬三百十餘石 糜秣四千七百八十餘石」⁽³²⁾이라 하였으나 米豆 合計 約 十萬石이援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그 후에도 軍糧의 不足은 如前하였으므로 癸巳年 11月에는 遼東都司 張三畏에게 다시 請粟稟帖을 보며 請糧事情을 明廷에 通告해 주도록 要請하였다며⁽³³⁾ 다음 해인 甲午年 正月에는 請糧使 諸項을 明廷에 派遣하기도 하였다.

그러나當時 明의 經略 宋應昌은 僕와의 和議가 進展될 기미가 보이자 朝鮮의 請兵, 請糧의 復請을 不必要한 것으로 생각하여 遼東總督 顧養謙으로 하여금 許使一行을 選東에서 抑留하여 明廷과의 接觸을 막아야 하기도 하였다.⁽³⁴⁾

이리하여 丁酉再亂이 일어나자 明兵이 大規模로 再出兵할 때까지 明과의 請糧交涉은 中斷되었다.

丁酉再亂으로 請糧交涉이 再開되자 宣祖는 明의 山西路安寧府 同知 鄭文彬에게 湖南이 倭軍에 占領되어 軍糧調達이 어려움을 들어서 明穀의 援助를 要請하였는데當時 明兵의 糜秣을 主管하던 鄭文彬은 措置를 約束하였다.⁽³⁵⁾

明兵이 入京은 丁酉 5月부터 戊戌 9月까지 龍山倉 및 江華海口를 收過한 明穀은 아래의 表 (3),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約 20餘萬石이었다.⁽³⁶⁾

위의 表 (3), (4)를 합하면 總計는 391,090石이며 이 중 朝鮮穀은 195,910石 明穀은 195,180石으로 朝鮮穀과 明穀은 大略 半半으로 볼 수 있겠다.

〈表 3〉 龍山倉 및 江華海口에서 收過된 米穀

(단위 : 石)

	我 國 米 穀		明 穀	
	放 出 糧 穀	在 庫 糧 穀	放 出 糧 穀	在 庫 糧 穀
本				2,310
大 米	54,910	3,120		5,900
小 米	19,140	960	31,700	32,570
豆 子	86,720	4,410	22,550	22,250
小 計	160,770	8,490	56,560	60,630
合 計		169,260		117,390

(29) 宣祖實錄 卷32 宣祖 25年 11月 乙酉條

(30) 宣祖實錄 卷32 宣祖 25年 12月 丁酉條

(31) 宣祖實錄 卷33 宣祖 25年 12月 戊申條

(32) 宣祖實錄 卷41 宣祖 26年 8月 戊子條

(33) 宣祖實錄 卷44 宣祖 25年 12月 壬子條

(34) 宣祖實錄 卷51 宣祖 27年 5月 己亥條

(35) 宣祖實錄 卷93 宣祖 30年 10月 庚午條

(36) 宣祖實錄 卷104 宣祖 31年 9月 庚戌條

〈表 4〉 各路의 倉으로 直送된 米穀

(단위 : 石)

	忠 州	麗 州	恩 津	全 州	羅 州	合 計
米 大 米	(明) 3,710 (朝) 3,490		(明) 1,190	(明) 2,800	(明) 200	7,900 3,490
小 米 豆 子	(朝·明) 21,970 (朝·明) 16,290	(朝·明) 5,050 (朝·明) 3,010	(明) 6,880 (明) 2,930	(明) 27,840 (明) 4,100	(明) 4,980	66,720 26,330
小 計	45,460	8,060	11,000	34,740	5,180	104,440

※ (明)은 明穀, (朝)는 朝鮮穀, (朝·明)은 兩國穀의 合.

※ (朝·明)에서 兩國穀의 量이 각각 半半이라 假定해 보면 朝鮮穀은 26,650石, 明穀은 77,790石이라고 볼수 있음.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大略 要約한다면 明兵 入國 이전의 8萬餘石과 明兵入國後 辰巳年間(1598. 12~1593. 8)의 10餘萬石, 그리고酉戌年間(1598. 5~1599. 9)의 20餘萬石을 合하여 導入된 明의 援助 糧穀은 大略 38萬餘石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勿論 이 數量을 正確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記錄上에 漏落된 糧穀도 있을 수 있으며 또 造作된 數字도 있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表 (3), (4)에서 보았듯이 丁酉再亂中 各地에 供給된 軍糧米中에서 明穀이 차지하는 比率이 約 50% 程度라는 統計는 期間中 明穀이 차지하는 比重이 대단히 커다는 事實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III. 軍糧 運送 手段

1. 陸 運

宣祖 25年 12月에 司諫 鄭旼藩은

「運糧事 諸臣皆以爲憚 以臣愚意思之 民間有馬者甚鮮 雖募人搬運亦必不多 臣爲守令 詳知民間事 村民雖不能捕倭 故不能負五斗米乎 自能輸至良策 車轡排日責功 次次灌輸可也 一邊括出牛馬 亦無不可也」⁽³⁷⁾

라하여 船運이나 牛馬力を 利用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輸送手段들이 매우 不足한 實情에서는 한 사람이 5斗씩을 겨우 끌어오는 程度라도 人力을 動員하는 것이 우선 急한대로의 良策일 수 밖에 없다는 主張을 하고 있다.

軍糧의 需要是 災急하고 運送手段은 不備한 形便에서의 窮詰之策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方案마저도 土民이 逃散하여 空虛가 된 郡邑에서 人力을 徵發하는 일이어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에 司憲府에서는 輸運節目을 催求하여 當上官 1人을 差出해서 철저한 管理를 하여야 한다고 奏하고 있다.⁽³⁸⁾

壬辰年 12月 李如松軍이 來援하여 와서 軍糧輸送이 緊急하게 되자 癸巳 正月부터 본격적으로 人力과 牛馬力を 動員하기로 하여 從事官 李延慶으로 하여금 人馬를 催發케 하는 한편 教書를 내려 政院으로 하여금 平安道의 男丁을 抄出케하고 또 寺刹의 俗人을 徵發하여 軍糧의 輸送을 擔當케하였다.⁽³⁹⁾

그러나 明兵의 迅速한 進擊에 맞추어 軍糧을 適期에 輸送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더욱 많은 人力을 必要로 하게 되자 明兵의 出兵으로 倭軍과의 戰鬪에서 主導權을 잃은 京畿義兵들로 하여금 明兵所在處까지 軍糧을 輸納하도록 하여 義兵를 軍糧輸送部隊로 轉用하기도 하였다.⁽⁴⁰⁾

그밖에도 大駕扈衛車·東宮行次侍衛車·步卒·湖南義兵有馬者·寧邊護衛軍等을 軍糧輸送에 動員하고 黃

(37) 宣祖實錄 卷33 宣祖 25年 12月 己酉條

(38) 宣祖實錄 卷33 宣祖 26年 1月 丙辰條

(39) 宣祖實錄 卷34 宣祖 26年 1月 丙寅條

(40) 宣祖實錄 卷34 宣祖 26年 1月 戊寅條

海道에서 養馬를 差出하기도 하였다.⁽⁴¹⁾

또 癸巳年 2月 義州穀을 輸送할 船隻이 不足하게 되었을 때는 義州와 中和의 一路間 各站에 官員 1人을 보내서 臺帳에 記錄된 洞里 人口를 調査하여 漏丁과 牛馬를 徵發도록 하였으며⁽⁴²⁾ 男丁의 不足은 女人을 徵發하여 補充케 하기도 하였으며 武科에 一箭適中으로 得科한 4千餘人 가운데서 赴戰者를 除外한 者들로 順安穀을 1人 20斗씩 平壤으로 直輸케 하여 明兵에게 供給하기도 하였다.⁽⁴³⁾

또 當時 平安道 助防將 金應瑞 幕下의 不堪戰者들로 하여금 平壤에서 糧穀을 負戴하고 黃州의 大軍을 美아서 運送케 하였으며⁽⁴⁴⁾

明兵이 京畿에 入界한 後에는 黃海道와 平壤과 義州間 沿路 各邑이나 郡邑에서 校生·品官을 差出하여 軍糧運送에 動員하였다.⁽⁴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軍糧運送에 動員된 人力은 男丁·僧侶·無能한 官軍과 義兵·女人·不堪戰者·武科에 得科하고 戰爭에 나가지 않은者(不赴戰者)·校生·品官 等 常民에서 士族에 이르는 廣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明兵이 碧蹄館에서 敗한 後 軍糧이 適期에 供給되지 못하는 것을 구실삼아 撤軍하려하자 人力動員 問題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吏曹參議 沈忠謙은

「宜令各邑 悉發諸色之人勿分老弱男女士族庶賤 無不驅出 一時肩戴 次第交替 如有累日淹滯者 本邑及督運之官 一以軍法參處 則必不如今日藉緩也 諸者或以爲民弊 亦不可不慮 臣意則不然」⁽⁴⁶⁾

이라 하여 男女·老弱·士族·庶孽 等一切의 人力을 差出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으며 備邊司에서는 厥軍赴戰精兵으로 逃走者 1,179人과 新及弟逃走者 349人 等 軍律犯罪者の 罪를 軍糧의 撤運으로 賞罪하는 措置에 同意하였고 司諫院에서도 明兵의 撤兵위험에 따른 時急한 軍糧의 運輸事에 대해서

「芻糧不繼 天將旋師 今日之事 莫急於輸運 而輸運之便易 莫過於十里立人之制 若今一路各官 盡出境內人夫及僧軍 又添隣邑人夫 則必無不足之患 二百人定一監官十名 各置一統往來僧軍 則萬無遲滯 鬪失之弊 事甚便益 請令該司 速急施行」⁽⁴⁷⁾

이라 하여 明兵이 通過하는 一路의 各官邑에서 人夫 및 僧軍을 差出하고 200人에 監督官 1人을 두고 10명을 一統으로 하는 人力의 조직적 活用을 啓奏하고 있다.

그러나 人力과 牛馬力を 利用한 陸運은 民力의 限界性과 差官 및 守令들의 任務遂行 소홀로 인하여 癸巳年 2月 이미 鴨綠江을 넘어온 明穀조차도 中和·黃州間에서 留滯되고 義州의 糧草도 積滯되는 現狀이었다.

2. 船 運

鴨綠江의 解水과 더불어 人力·牛馬力보다는 運送力이 뛰어난 船運이 促求되었다.⁽⁴⁸⁾

戰爭의 長期化로 明穀의 依存度가 커지고 補給路도 길어지므로 船運의 必要性은 더욱 커졌다.

備邊司에서는 이미 癸巳年 正月부터 鴨綠江의 解水을 기다려서 沿海 公私船을 調發하여 船運할 것을 계획하고 同年 2月에 監牧官 金繼先으로 하여금 平安道의 船隻을 徵發하였으나 數가 적어서 義州의 糧穀을 모두 船運할 수 없었다.⁽⁴⁹⁾

이렇게 船運에도 船隻을 徵發하는 括船이 어려웠으므로 船運의 장려책이 必要하여 備邊司에서는 船運에 從事하는 船夫의 敗業에 대한 酬賞으로 船運에 從事한지 1년이 지난 者는 一度 運行者에 1年 復戶를, 每 1回

(41) 宣祖實錄 卷35 宣祖 26年 2月 丙戌條

(42) 宣祖實錄 卷35 宣祖 26年 2月 癸巳條

(43) 柳成龍：憲慈錄 卷2

(44) 宣祖實錄 卷36 宣祖 26年 3月 丙辰條

(45) 宣祖實錄 卷35 宣祖 26年 2月 丙申條

(46) 宣祖實錄 卷35 宣祖 26年 2月 癸丑條

(47) 宣祖實錄 卷35 宣祖 26年 2月 甲辰條

(48) 宣祖實錄 卷34 宣祖 26年 1月 丁卯條

(49) 宣祖實錄 卷35 宣祖 26年 2月 壬辰條

運行에 각 1년을 加하여 空名帖을 주도록 하고 그 運行數를 計算하여 差次로 賞을 주도록 하였고⁽⁵⁰⁾ 同年 11月에는 船價의 높은 支給과 賞格을 百姓들에게 下諭하고 平安監司에게는 道內의 公私海船을 調査하도록 하였다.⁽⁵¹⁾

丁酉再亂時에는 더욱 明毅의 依存度가 높아지고 補給路도 길어져서 더 더욱 船運이 本格化되었다.

朝廷에서는 壬辰亂時의 經驗을 살려서 먼저 船隻徵發(括船)에 主力하여 京畿監司에게는 京江船隻을 徵發하게 하며 각 道 舟師는 漁夫의 船隻으로 官에 謄錄된 것 이외의 모든 船隻을 徵發하여 主管케 하였다.⁽⁵²⁾

그러나 船主들이 司廳院漁船, 譜宮家船, 内需司所屬船 등을 稱하여 徵發을 避하는 경우가 많아서⁽⁵³⁾ 司憲府도 이 避船問題에 관해서

「軍糧舟運 正今日莫急之務 為主管者 成當盡心竭力 大小船隻一一搜括 俾無隱漏之弊 而頃日唐糧載輸之時 京江則舟師將 外方則 京畿黃海道監司 刷括之事 專不刻意 使權勢家船隻 多數隱漏 極為無謂」⁽⁵⁴⁾

라 하여서 主管者の 誠意를 促求하고 權勢家の 船隻으로 多數가 避船하는 것을 막도록 建議하고 있다. 括船이 戊戌年 5月을 前後해서 더욱 急迫하여진 것은 明毅이 戊戌年 2月부터 9月사이에 集中的으로 朝鮮에 到來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船運獎勵를 위해서 策定되었던 癸巳年 運糧事目에서는 運糧船數에 따라 免役·賞職·等帖을 주는 程度였으나⁽⁵⁵⁾ 戊戌年 4月에는 船隻 格軍의 生業對策으로 義州 糧穀 10石 運搬에 2石을 船價로 支給하였다.⁽⁵⁶⁾

當時 服毅이 船運의 經路를 살펴보면 암록강에서 大同江 河口의 廣梁鎮까지는 明의 船舶이 運送을 擔當하였고 이곳에서 西·南海의 公私船隻이 明毅을 江華府로 直送하고 江華에서 路을 나누어 平底船으로 漢江을 타고 忠州로, 錦江을 타고 公州로, 西海를 따라 全州等地로 輸送하였는데 海路의 里數로는 廣梁鎮에서 江華間이 600里, 江華·忠州間이 300里, 江華에서 忠淸·全羅沿海까지가 400~500里가 되어서⁽⁴⁷⁾ 船運이 아니고서는 明毅의 運搬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陸運의 負擔을 지는百姓들 조차도 陸路로는 軍糧運送이 最少限 往復 40餘日이 걸리고 人馬를 疲困하게 하여 瘦瘦을 가져오게 하는 陸運대신에 船價를 倍出하더라도 船運을 願하는 實情이었다.⁽⁵⁸⁾

以上에서 살펴본 바를 要約해 보면 亂初에서 平壤奪還時까지는 주로 人力과 牛馬力を 利用한 陸運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鳴綠江의 解永파 함께 明毅의 搬運을 위해서 船運이始作되어서 丁酉再亂時까지는 戰線의 南下로 補給路가 길어지고 明毅의 依存度가 커지자 明軍도 船運의 便利를 利用할 수 있는 곳에 駐屯하여 船運이 많이 利用된 듯 하다.

勿論, 從前부터의 田稅米가 潛運을 通하여 朝廷에 搬運되던 것도 대부분 그대로 軍糧米로 轉用되었을 것임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그러나 人力이나 牛馬力의 도움없이는 最一線까지의 軍糧補給은 不可能하므로 人力이나 牛馬力도 繼續 徵發 使用되었던 것이다.

IV. 軍糧의 供給

1. 祖承訓軍에 대한 軍糧供給

壬辰年 6月 11日 定州를 出發한 請援使 李德馨은 遼東에 이르러 遼東巡撫都御史 郝杰에게 前後 6次에 걸

(50) 宣祖實錄 卷41 宣祖 26年 8月 甲午條

(51) 宣祖實錄 卷44 宣祖 26年 11月 己巳條

(52) 宣祖實錄 卷98 宣祖 31年 3月 己亥條

(53) 宣祖實錄 卷100 宣祖 31年 5月 壬辰條

(54) 宣祖實錄 卷100 宣祖 31年 5月 丁亥條

(55) 宣祖實錄 卷38 宣祖 26年 4月 癸丑條

(56) 宣祖實錄 卷100 宣祖 31年 4月 癸亥條

(57) 宣祖實錄 卷87 宣祖 30年 4月 癸酉條

(58) 柳成龍: 懿志錄 卷13 辰巳錄 陳運糧之弊狀

친 嘆願 끝에 그의 마음을 움직여 그로 하여금 遼東鎮의 兵馬 5千을 出兵시키는 臨期措置를 取하게 하는 데 成功하였다.⁽⁵⁹⁾

그리하여 遼鎮副摠兵 祖承訓이 指揮하는 3千의 明兵이 來援한 것은 壬辰年 7月 中旬의 일이었다.

朝鮮朝廷에서는 明兵 5千의 來援 通報를 받고 즉시 柳成龍을 接伴使로 任命하여 明兵에 대한 軍糧供給을準備하도록 하였다.

柳成龍은 從事官 辛慶晉을 派遣하여 一路의 軍糧을 點檢케 하는 한편 「考功冊」을 다질하여 軍糧調達에 대한 功績을 記錄케 하고 또 定州·嘉山等地에 糧穀 2千石을 끌어놓았으며⁽⁶⁰⁾ 忠淸道 牙山倉의 稅米 1千2百石을 行在所에 보내려던 것을 定州방으로 돌려서 立岩浦에 回送케하고 守門將 姜士雄으로 하여금 定州에 2百石, 嘉山에 2百石, 安州에 8百石을 分送케 하였는데 定州는 僂軍이 너무 가깝다 하여 清川江上에 배에 실은 채로 待機시키기도 하였다.⁽⁶¹⁾

이 때 明에서는 鴨綠江線까지는 自國의 兵站給養에 依支하였으나 朝鮮國內에서의 紙養은 朝鮮에서 調辦케 하였던 것이다.

明兵의 作戰은 壬辰年 6月 中旬頃 義州에 와서 駐屯하고 있던 遊擊將 史儒와 參將 郭夢徵의 領兵 1千이同年 7月 中旬頃에 到着한 祖承訓의 世力 2千兵과 合勢하여 7月 17일 平壤을 攻擊하다가 失敗하고 7月 19일 遼東으로 退却한 短期間의 作戰이었다.⁽⁶²⁾

이러한 祖承訓軍의 作戰은 少數兵力에 의한 短期間의 作戰이었으므로 朝鮮政府에 의한 軍糧供給에는 별 다른 蹤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李如松軍에 대한 軍糧供給

祖承訓軍이 敗走하였다는 報告가 잇따르자 明의 兵部尚書 石星은 神宗에게 「文武의 2大臣을 特遣하기고 蓼鎮의 南北 軍士를 統領하여 곧 朝鮮으로 나가서 屬國을 保全케 하시고 門庭을 들키 하소서」하니 神宗은 이의 可否를 議論케 하였는데 廷議가 一定치 않고 兵科都給事中 許弘綱 등은 出兵을 反對하였으나 遼東巡撫 郝杰이 다시 援兵 보낼 것을 奏請하니 同年 同月 26일에 드디어 東征軍을 보내기로 決議하게 되었으며⁽⁶³⁾ 同時に 行人司 行人薛藩을 보내어 勅諭를 내려서 援兵을 보낸다는 뜻을 通告하게 하였다.⁽⁶⁴⁾

이리하여 明廷에서는 그 해 8月 18일에 文臣 兵部右侍郎 宋應昌을 經略防海備倭軍務로, 武臣 都督 同知 李如松을 提督蘆遼保定山東等處 軍務防禦倭 總兵官으로 任命하여 援兵을 統率 朝鮮에 나가게 하였던 것이며 經略 宋應昌은 遼東에 指揮本部를 設置하였으며 提督 李如松은 楊元, 張世爵, 李如栢 등 將領들과 5만의 兵力を 이끌고 同年 12月 下旬 鴨綠江을 건너 오게 된 것이다.⁽⁶⁵⁾

이 때 來援한 明兵의 數에 관해서는 柳成龍의 懲毖錄 卷2壬辰 12月條에는,

「天朝大發兵 以兵部侍郎宋應昌 爲經略 提督李如松 爲大將 兵數四萬餘」

라 하였고 宣祖實錄 卷31 宣祖 25年 10月 壬子條에는 「天兵 共計四萬八千五百八十五名 將領中軍千把摠 不在數內」라 하였으며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 25年 12月 丁亥條에는 「合四萬三千餘人 繼出者 八千人」이라 하여 약간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데 繼出者를 明示한 修正實錄의 記錄이 가장 正確한 記錄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들 明의 援兵이 平壤을 收復할 때까지의 作戰期間은 대략 15日의 短期間이었다.⁽⁶⁶⁾

朝鮮朝廷에서는 謝恩使 申點, 書狀官 鄭期遠一行이 北京으로부터 돌아와 明兵의 來援決定을 傳하였다.

(59) 前揭 壬辰戰亂史 上卷 p.229~233.

(60) 柳成龍: 懲毖錄 卷1.

(61) 上揭書, 逢6, 壬巳錄 一路軍糧措置緣由

(62) 前揭 壬辰戰亂史 上卷, p. 414.

(63) 前揭, 壬辰戰亂史 上卷, p. 163.

(64) 이 勅使는 관당되어 9月 3일에 義州에 到着.

(65) 前揭, 壬辰戰亂史 上卷, p. 378, p. 542, p. 546.

(66) 李如松의 本陣主力이 압록강을 건넌 것은 壬辰年 12月 25일이었으며 平壤을 奪還한 것은癸巳年 1月 8일.

므로⁽⁶⁷⁾ 明兵에 대한 軍糧調達 計劃을 세우고 있었는데 主務長官은 都體察使 柳成龍이었다.

柳成龍은 平壤을 夺還할 때까지의 所要軍糧 確保를 一次的 目標로 하여 義州와 平壤間 要路의 各邑에 軍糧을 備蓄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壬辰年 7月의 義州와 平壤間 要路 官邑이 所有하고 있는 糜穀의 現況을 보면 昌城에 白米와 田米 1萬餘石, 朔州에 田米 4,900餘石, 白米와 造米 各 750餘石 薫米 120餘石, 昌城과 朔州에 馬豆 7,000餘石이 備蓄되어 있었고 龜城도 亂中에 府使 柳永吉의 努力으로 城內 倉穀이 모두 保全되어서 軍糧調達源이 되었다.⁽⁶⁸⁾

8月에 들어오면 各 地域의 倉穀이 增加하고 있다.

特히 明兵이 通過한 要地인 安州倉穀이 急增하여 倉米 1,500餘石에 牙山稅米 700石, 移轉米 200石이 늘고, 三知와 龍岡も 田造米 1,000餘石斗 藏船米 2,000餘石, 嘉山·宣川·龍川·鐵山은 3,000~5,000石, 義州·所串·定遠의 倉米 17,000餘石, 龜城·龍岡의 10,000餘石, 三知와 江西의 6,000~7,000石이 確保되었다.⁽⁶⁹⁾

9月에는 牙山 田稅米豆 田米와 大麥 7,5000石이 定州에 到着하였다.⁽⁷⁰⁾

10月에는 黃海道米 3,000石斗 江華米 2,000石이 平安道에 들어와서 壬辰年 10月 義州·平壤間 十官 및 大邑의 倉穀의 總數量은 大米와 小米 등 合計가 51,488石에 达하여 5萬兵의 2個月間 供給量이 確保되어 있었다.⁽⁷¹⁾

이와 같이 많은 量의 糜穀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定州·安州·昌城·朔州·義州·肅州·龜城·宣川·鐵山·龍川·三知·咸從·嘉山·郭山·龍岡·永柔·脈山·順安·江西 等의 18官邑이 倭軍의 侵入을 받지 않은 地域이었고 그 중 特히 義州·朔州·昌城·龜城 等地의 倉穀이 混亂中에도 잘 保管되었으며 牙山倉의 田稅米가 船運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如何間, 5萬兵을 2個月間 紿食할 수 있는 量이 確保되어 있었다는 事實로 미루어 본다면 李如松軍이 平壤을 夺還할 때까지는 朝鮮政府에 의한 軍糧供給이 역시 아무런 難跌 없이 違行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癸巳年 1月 8日에 平壤을 夺還한 明兵이 10일이나 經過하도록 後軍을 追擊하지 못하다가 同月 19日에야 先鋒이 開城에 入城하고 李如松의 主力은 同月 25일에야 進駐하게 되었으며 뒤이어 同月 26일에는 碧蹄館戰鬪에서 敗한 후 그 敗戰責任을 軍糧調達未備에 둘러 朝鮮의 重臣들을 問責하게 된 經緯⁽⁷²⁾ 等을考慮해 볼 때 平壤奪還 以後의 軍糧供給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

그런데 이와같은 軍糧供給의 不進은 黃海·京畿 地域이 敵侵을 받은 地域이라 軍糧調達源이 枯渴되었다는 것도 原因이라 할 수 있지만 더욱 直接的인 原因은 人力動員의 困難으로 確保된 軍糧마저 迅速하게 輸送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이리하여 朝廷에서는 各邑의 人丁·牛馬를 있는대로 差出하는 것은 勿論이려니와 大駕扈衛軍·東宮侍衛軍·各地의 義兵 等까지도 軍糧의 運送에 動員하였던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앞장에서 이미 說明한 바 있다.

明兵이 碧蹄館 敗戰後 開城에 미투르게 되자 柳成龍은 西江米 5,000餘石, 黃海道 金郊站의 所儲米 2,000餘石, 海州·延安·牛峰·鬼山 等地에서 軍糧을 調達케 하였다.⁽⁷³⁾

그러나 李如松은 軍糧의 不足을 理由로 平壤으로 撤兵하였으며 朝鮮軍의 경우는 都元帥 金命元의 軍卒조차 餓死者가 繢출하고 餓死者가 不知其數였다.⁽⁷⁴⁾

이와 같이 軍糧事情이 어려울 때 癸巳年 3月에 明穀 26,000餘袋가 平壤에 到着하고⁽⁷⁵⁾ 同年 4月 19日 後軍이 서울에서 물러나자 京畿의 各地에서 8萬餘石의 糜穀이 모여 치고 계속해서 明穀도 導入되었는데 戸曹에

(67) 이들은 壬辰年 7月 23일에 歸國.

(68) 宣祖實錄 卷28 宣祖 25年 7月 辛酉條

(69) 柳成龍: 懿愍錄 卷6 辰巳錄 料理運糧狀

(70) 宣祖實錄 卷30 宣祖 25年 9月 癸酉, 辛酉條

(71) 宣祖實錄 卷31 宣祖 25年 10月 壬子 「天兵 共計 四萬八千五百八十五名…一日糧每一名 一升五合…一日約用米 七百二十石 二個月則米 四萬八千五百八十五石」

(72) 註 (4)와 同

(73) 柳成龍: 懿愍錄 卷9 癸巳 2月 9日條

(74) 宣祖實錄 卷35 宣祖 26年 2月 壬子條

서는 壬辰年 12월에서 癸巳年 8월까지 小米 50,600餘石과 豆子 50,310餘石이 援助되었다고 報告하고 있으니⁽⁷⁶⁾ 이로 미루어 본다면 明兵에 대한 軍糧供給은 碧蹄館 敗戰以後 時日이 經過함에 따라 차츰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軍糧의 補給이 好調를 띠자 明兵의 進擊도 활발해져서 劉綎軍은 星州, 祖承訓·葛逢夏軍은 居昌, 吳惟忠軍은 善山, 駱尚志·王必軍은 慶州에 각각 進駐하게 되었다.⁽⁷⁷⁾

그리고 以後 明·倭間의 和議交涉이 進展될 기미를 보이자 明兵은 順次의으로 徵兵을 斷行하여 甲午年 8月에는 거의 全兵力이 撤收하게 되자 明兵에 대한 軍糧供給 問題는 自動的으로 解消되었다.

3. 丁酉再亂時 明兵에 대한 軍糧供給

和議交涉이 깨어지고 丁酉年 1月부터倭軍은 다시 侵略軍을 再編成發進하기始作하여 3月 中旬頃에는 總兵力이 14萬餘名에 达하게 되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明廷에서도 兵部左侍郎 邢玠를 兵部尚書로 陞叙하는 同時に 經略禦倭兼理糧總督蔚遜保定軍務로 삼고 山東右參政僉都御史 楊鎬를 經理朝鮮軍務로, 都督 麻貴로 備倭總官을 삼아 約 5萬 5千의 援軍을 보내왔다.⁽⁷⁸⁾

앞에서도 指摘하였듯이 戰亂이 長期化할수록 國內에서의 軍糧의 調達은 더욱 어려워지는 形便인데다가 7月에는 朝鮮水軍이 漆川梁에서 敗하고 8月에는 南原의 楊元麾下 明兵이 敗하여 全羅道地方까지 濟侵을 반복되자 明兵에 대한 軍糧調達은 주로 明毅에 依支하는 實情이었다.⁽⁷⁹⁾

丁酉年 5月부터 戊戌年 9月까지에 龍山倉 및 江華海口를 收過한 內國糧穀과 明穀의 合計는 總 395,350石이었고 內穀과 明穀의 比는 50對50이 있음은 앞장에서도 살폈 바와 같다.⁽⁸⁰⁾

丁酉再亂은 戊戌年 9月倭軍의 主力이 穂山에서 朝明聯合軍에게 大敗한 後 11月 19日 露梁海戰으로서 戰亂의 幕을 내리기까지에 떨다른 큰 戰鬪는 없는채 小康狀態를 維持하는局面이었다.

그러나 露梁海戰은 侵略軍을 끝까지 膽懾하고자 한 朝明水軍이 依한 戰滅戰이라고 불러야 할 性質의 戰鬪였을 뿐 실제로 明軍의 主力은 10月 中旬頃 徵收하였다 것이다.

V. 結 語

戰爭準備가 전혀 안된 狀態에서倭軍의 寄襲의侵入을 받고 「聞風而潰」하던 朝鮮政府는 水軍의 連勝으로 因한 穀倉地帶의 確保와 全國的으로 일어난 義兵의 活躍에 힘입어 戰亂 初期의 混亂을 차츰克服하고 戰列을 再整備하는 한편 明에 援兵을 要請하였고 明도倭軍의 實勢에 놀라 自國의 國防을 為하여 聚國의援助를 斷行하게 되었던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 때 上國의 援兵으로 參戰하여 天兵이라 稱하며 威勢가 當當하였던, 그리하여 軍糧供給의 未恰을 責잡아 朝鮮의 重臣에게 杖罰까지 加하던 明兵에 대한 軍糧供給 問題를 戰爭 遂行 過程과 連繫시켜서 살펴보았다.

亂이勃發하자 巨城大邑에 모아 놓았던 備蓄穀은倭軍이나 亂民에 依하여 掠奪당하거나 淹失되었으며 亂이 長期化될수록 耕作農民의 流亡 또는 徵發과 耕作地의 荒廢化로 生產量은 激減되는 實情이 있다.

이러한 어려운 狀況아래서 政府가 軍糧調達을 為하여 取한 非常對策인 募聚等은 弊端은 많았음에 비하여 그 所得은 많지 않았으며 期待하지 않았던 社會 身分 階層의 變化만을 가져왔다.

朝鮮政府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明에 請糧使를 派遣하였는데 明에서는 自國의 國防을 為하여 援兵을 보내는 立場이었으므로, 朝鮮의 實情을 알고는, 積極的으로 軍糧을 援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明兵入國以前에 이미 8萬餘石의 軍糧을 보내왔으며 그 後에도 壬辰·癸巳年間의 10餘萬石과 丁酉·戊戌年間의

(75) 宣祖實錄 卷36 宣祖 26年 3月 戊寅條

(76) 宣祖實錄 卷41 宣祖 26年 8月 戊子條

(77) 宣祖實錄 卷37 宣祖 26年 5月 甲寅條

(78) 宣祖實錄 卷91 宣祖 30年 2月 壬辰條

(79) 前揭, 表(3), (4) 參照.

(80) 上 同

20餘萬石 등 都合 38萬餘石의 糧穀을 援助하였다.

그러나 戰亂勃發後 人力 또한 甚히 枯渴되었으므로 軍糧을 運送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問題였다.

陸運에서는 人力이나 牛馬力を 動員하여야 했는데 그 資源이 甚히 不足한 狀況이었으므로 各 郡邑의 男丁뿐만 아니라 女人과 僧侶까지 動員하였으며 後에는 官軍中 非戰鬪員, 義兵, 國王과 王世子의 護衛軍까지 動員하는 形便이었다.

癸巳年에 들어와 鴨綠江이 解冰되자 船運이 開始되어 丁酉再亂時까지 軍糧輸送에 가장 큰 役割을 擔當했던 것이 船運이었는데 丁酉再亂時에는 戰線의 南下로 補給路가 길어졌을 뿐만아니라, 軍糧의 明穀依存度가 더욱 커지게 되었으므로 船運의 役割도 더욱 커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人力이나 牛馬力의 도움 없이는 最一線까지의 軍糧供給은 不可能하였으므로 人力과 牛馬力도 繼續 徵發되었음을 勿論이다.

이와같이, 그 謂達源이나 그 運送手段이 다같이 粗惡한 與件下에서도 대체로 明兵에 대한 軍糧供給은 커다란 鏈跌없이 遂行되었다.

祖承訓軍의 平壤 攻擊作戰과 李如松軍의 平壤 奪還作戰은 모두 短期間의 作戰이었을 뿐만아니라 來援通報를 받은 朝鮮政府에서 事前에相當한 準備를 해놓고 있었으므로 커다란 問題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問題가 있었던 것은 明軍의 平壤 奪還以後 碧蹄館 敗戰 때까지의 軍糧供給이었다.

이 때에는 黃海·京畿 地域이 敵侵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糧穀이나 人力이 다같이 枯渴되었기 때문이었으나 얼마 後 妥軍이 서울에서 撤收하자 京畿各地에서 軍糧이 끊이고 明穀도 到着하였으므로 차츰 事情은 好轉되어 갔던 것이다.

丁酉再亂時에는 戰亂의 長期化로 因하여 生產量이 激減되었을 뿐만아니라 湖南地方마저 敵侵을 당하여 與件이 더욱 惡化되었으나 明穀의 援助量이 增加되고 政府의 戰爭 遂行 ability이 向上되므로써 人力이나 資源을 보다 더 効率적으로 管理할 수 있었던 듯 하다.

參 考 文 獻

1. 朝鮮王朝實錄
2. 柳成龍：憲臣錄
3. 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1981.
4. 李炯錫：壬辰戰亂史，壬辰戰亂史編纂委員會，1976.
5. 姜萬吉：韓國史의 觀點「韓國史의 反省」歷史學會，1973.
6. 崔永禧：壬辰義兵의 性格，「史學研究」韓國史學會，1976.